

청 명



清 맑을 청
明 밝을 명



- ▶ 춘분과 곡우 사이의 절기로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아요
- ▶ 4월 초 즈음에 시작되는 절기에요.

청명 유래 및 풍속에 대해 알아보까요?

▶ **유래** : 맑을 **청** 자에 밝을 **명** 자를 써서 '**청명**' 이라고 부른대요

'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' 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
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

▶ **본격적으로 바쁜 농사일이 시작**

청명이 오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여 논밭의 가래질과 독 다지기, 보리밭 매기,
채소 파종, 모내기 하기에 가장 적합하여 이날 **성묘(省墓)**를 가기도 한다.

▶ **청명은 예로부터 참 좋은 날로 꼽혀 왔나 봐요~**

종종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택일 없이도 **산소 관리, 묘자리 고치기,**
집 수리 등의 중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.

▶ **청명에는 '청명주'라는 술을 마시는데 '청명절(淸明節)에 담그는 술'** 로
색과향, 맛이 뛰어나 왕에게 진상되었고, 사대부가에서는 손님접대용으로
쓰였던 귀한 술한식 제사에서 제주로 쓰였고, 농사가 시작되면 농주로도 사용